

말씀 요점



금주의 묵상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30 주일



80.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둘째, 성신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리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81.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 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外飾)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82.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만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체 소식



1. **환영:** 오늘 브니엘 교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 담임목사님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2. **방학:** 8월까지 교회 프로그램들이 방학 중입니다. 휴식 중에도 주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시고 기도의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3.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번 주는 계속해서 30 주차 "성찬에 관하여"입니다. 잘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4. **출타:** 여름철을 맞아 휴가나 출타하시는 분들은 교역자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교 사인업 확인 부탁드립니다.
5. **기도제목**
 1. 성도들의 생업의 타전과 여름철 건강을 위하여
 2. 브니엘교회의 영적, 숫자적, 도덕적 부흥을 위하여
 3. 우리가 사는 필라델피아와 미국,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지난 주 헌금



주일 예배 봉사 위원



	기 도	친 교/다 과	친 교 기 도
이번 주	홍 승 민	정하일/문성자	황 인 권
다음 주	정 하 일	최 장 복	문 성 자

교회 안내



브니엘 교회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신 (히 1:3)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본분을 전파하기 위하여 1991년 세워진 신앙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야곱의 “브니엘 체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 각 지체의 삶과 가정,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풍성하게 자라며 변화하여 주변의 지역사회와 온 세상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도록 하는데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예배 및 모임 시간

* 주일예배: 오전 10 시 * 리딩지저스 성경공부: 온라인

후원 선교사

* 이영길 / 정은경 선교사 (인도 바하르, 우간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홍승민 목사 penielkpcpastor@gmail.com
* 부목사: 주재형 목사 agathosju@gmail.com



찾아오는 길

* 주 소: 브니엘 한인 장로교회
691 W. Germantown Pike
Plymouth Meeting, PA 19462
* 연락처: 215-220-4137
* 사이트: www.penielpkc.org



주일 오전 10시

* 표는 일어서서

인도: 홍승민 목사

목 도	
* 찬 송	다같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1 장
* 교 독 문	33. 시편 72 편
*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 장
기 도	홍승민 목사
봉 헌	다같이
성경봉독	출애굽기 19 장 1-8 절
찬 양	찬양대
설 교	광야를 지나며 10: "광야에서 기억할 은혜"
* 찬 송	홍승민 목사
* 축 도	"은혜"
광 고	설교자
	인도자

담임목사 홍승민



브니엘 장로교회
Peniel Korean Presbyterian Church

* 주 소: 691 W. Germantown Pike Plymouth Meeting, PA 19462
* 연락처: 215-220-4137 * 사이트: www.penielpkc.org